

01

세금,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되다**- 450명 구민과 함께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

프롤로그: 불확실성이라는 비용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복잡해진 세법으로 인해 강남구민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장 큰 재무적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세금 때문에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제1막: 450석을 가득 채운 열기

2025년 9월 16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450명의 구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이날 특강의 강연자는 상속·증여세 분야의 권위자인 김호용 세무사였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김호용 세무사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강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무 사례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습니다.

제2막: 명쾌한 해법, 걷히는 안개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구민들이 가진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실전의 장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문제”, “해외 거주 자녀 증여” 등 인터넷 검색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한 구민은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석